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0 2020. 11. 6 Fri

발행인 이상인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희 편집장 김정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JEONJU²¹
intl. film festival
2020.5.28-6.6

2 보도
본교 영화영상전공,
국내 유수의 영화제
선정 쾌거



6 사회
'사적 처벌' 디지털
교도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8 기획
MBTI에 빠진
2030세대.



11 문화
슬기로운
문화생활
-영화, 음악

2020 영암축전 '힐링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지난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 양일간 We:Higher 총학생회가 주최한 2020 영암축전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13일(화)에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E-SPORTS 게임 '피파', '테일즈런너', '리그 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결승전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피파는 박용수(도디 15) 학우가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오브레전드는 박상훈(컴공 17) 외 4인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둘째 날인 14일(수)에는 '힐링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행사는 이상인 총장서리의 인사말로 막을 열었다. 이상인 총장서리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대단히 기쁘다. 올해 2020학년도 신입생들은 환영회와 입학식도 못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돼 굉장히 마음 아프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을에 들어서 축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여전한 기승을 부려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축제를 새로

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축제에 동참한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곧이어 함께 코로나를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계열별 응원전이 시작됐고, 밴과 황인욱이 초청가수로 초대됐다. 더 나아가 학우들의 재밌는 이야기와 고민이 적힌 사연을 추천해 가수 밴과 황인욱이 읽어주고 사연에 맞게 노래를 불러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앞선 행사의 채팅창에는 많은 학우들이 "생

각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에 놀랐고 덕분에 힐링을 제대로 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비대면 축제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채팅창을 통해 활발히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대학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줬다.

글 - 서효정 기자 hj000119@sungkyul.ac.kr
사진 - 총학생회 제공

미리보기

취업의 최종 단계,
면접에 대한 모든 것



<5면에 계속>

MBTI에 빠진 2030세대



<8면에 계속>

라떼는 말이야



<10면에 계속>

본교 경영학과, (주)유엔아이메디컬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본교 경영학과는 지난 9월 14일 (주)유엔아이메디컬과 상호 간의 미래 산업 인재 양성 및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협력에 따른 학생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특강 △현장실습(행정업무, 해외영업, 국내영업) 견학 지원 △역량기반 산학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혁신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세계적인 혁신리더 배출을 위해 융합 지식이 함양된 전문 인재 양성 도출 △정부 정책사업 연계 추진에 협력 △의료기기 제품 개발, 평가, 기술 지원 확산 및 공유 △기타 협력 사업 추진 및 교류의 상호 협력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실습 태도와 실력 평가 후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에 김수현(경영 18) 학우는 “산학협력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기대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환영했다.

한편 (주)유엔아이메디컬은 지난 2015년 설립됐으며 전국 대학병원 및 로컬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료소

모품 등을 제작·공급하고 있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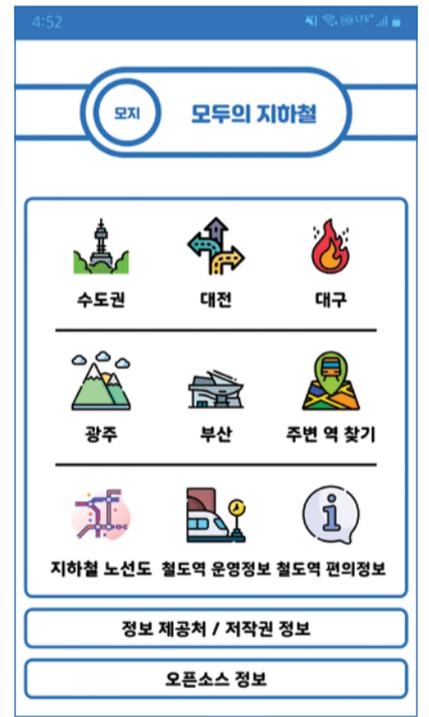
본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팀, 철도산업정보센터 공모전 최우수상(1위) 수상

본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팀(3학년 윤영선 외 3인)이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주최한 ‘역 편의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공모 분야는 역 편의 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로, 본 팀은 종강 후 방학 동안 팀 활동을 진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본 팀이 개발한 ‘모두의 지하철-MOJI’는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모든 역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 국민들에게 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리프트, 전동 휠체어 충전설비,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편의정보를 간략하게 알려준다. 또 더 정보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는 상세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도 기능을 활용해 주변 역을 찾고, 목적지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여러 기능들을 구현했으며, 지하철 노선도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했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영화영상전공, 국내 유수의 영화제 선정 쾌거

JEONJU 21 intl. film festival 2020.5.28-6.6

본교 영화영상전공 학우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산업에서 눈부신 활약을 통해 유수의 영화제에서 여러 편의 작품이 선정돼 학우들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본교 10학년 유준민 동문의 작품 <유통기한>이 국내 최대 규모 영화제 중 하나인 전주국제영화제 단편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

국제영화제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018년 송예진 동문의 <환불>이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우리 동문 작품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뤘다. 또한 이번 영화제 장편경쟁부문에는 07학년 김종재 동문의 <생각의 여름> 또한 선정되는 등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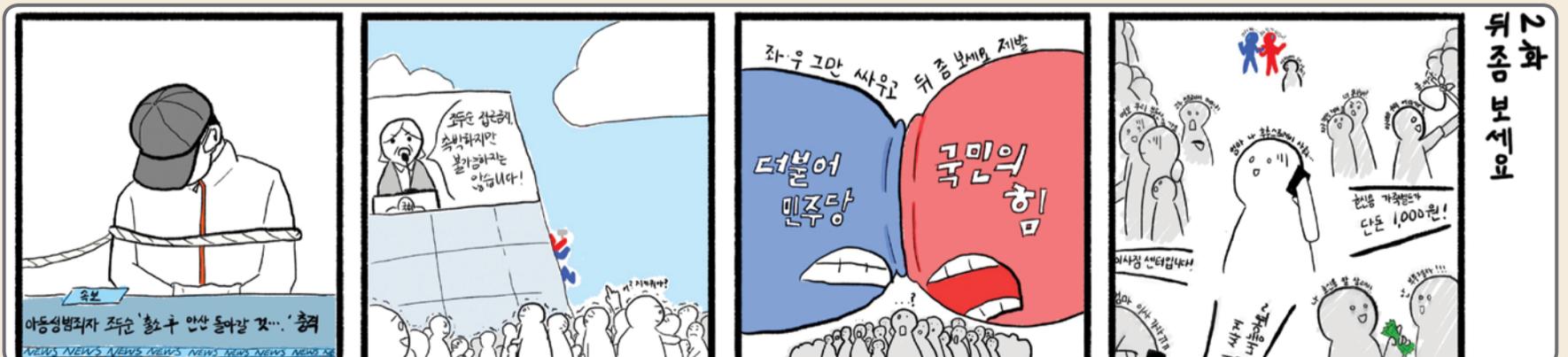
‘2020 상반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본교 영화영상전공 심수경(13학번) 동문의 시나리오 <세사람>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은 국내 최대 규모와 권위의 공모전으로 올해도 출품 편수만 575편에 달하는 엄청난 경쟁을 기록했으나, 심수경 동문의 작품 <세 사람>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탄탄한 캐릭터들의 운용으로 캐릭터들의 심리를 잘 따라갔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20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본교 영화영상전공 4학년 신하연 학우의 <덕산리 대피소>가 단편경쟁부문에 선정됐다. 이처럼 매년 굵직한 유수의 영화제에서 연일 커다란 성과를 내며 본교 영화영상전공의 위상을 드높였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성 결 만 평

그림 - 김민진 수습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 정우민 수습기자 jelly1110@sungkyul.ac.kr



본교 경영학과, 한국증권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월 18일 본교 경영학과가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개발원')과 상호 간의 미래 산업 인재양성 및 정보공유를 도모하고자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식트레이딩전문가(STS)자격증의 교육콘텐츠 및 응시료 할인 지원 △단체시험(30명이상) 요청 시 일정 및 장소 협력 △견학프로그램을 지원 △재무 및 투자관련 과목(투자론, 선물시장옵션론, 재무분석론, 금융시장론)을 A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협의, 진행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이효정(경영 18) 학우는 "평소 전공과목을 공부하면서 금융권과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체결이 이뤄져서 기쁘다"고 말하며 협약을 통해 본교 학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결이 이뤄져서 기쁘다"고 말하며 협약을 통해 본교 학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트레이딩전문가(STS)자격증은 2016년 금융위원회에 정식 승인을 받은 금융자격증이며, 현재 한국증권인재개발원과 경제방송채널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공동주관하고 있다. 증권사로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후원하고 있으며 60여 개 기업으로부터 금융자격증 우대를 받고 있는 자격증이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안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증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보내왔으므로 안내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1. 배경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음.

2. 근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장소, 시설, 운송수단, 지역, 기간을 정할 수 있음.

3. 기준
- 1) 장소-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장, 요양시설 등 해당
 - 2) 종류-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3) 착용법-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할 것

※ 단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경우 제외

● 여행경보 관련하여 특별여행 주의보 11월 17일 까지 연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 안내

1. 소독전 개인보호구 착용, 적절한 소독제 준비 및 환기 실시
2. 소독시 1차로 비누, 물을 사용하여 표면을 청소하고 이후 살균소독제를 천에 적셔 표면을 닦음 (금속, 양모, 나일론, 실크, 염색된 직물, 페인트 표면은 제외함)
3. 소독후 개인보호구 탈의, 폐기물 처리 및 환기 실시

기온차가 심하므로 체온조절을 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467-8386(보건진료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안양시와 연계 '2020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 성황리 개최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본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문채교수는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본교 지역사회협력단의 공동주체로 '2020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본교는 지난 2017년 제1회 축제부터 안양시와 협력해 두루미 명학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9월 13일(일)부터 19일(토)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13일(일) 두루미를 상징하는 '뚜루'의 축제 소개를 시작으로 △본교 이상인 총장서리와 명학마을 센터장의 축사 △두루미 별이 빛나는 밤 △명학마을 나들이와 도시재생을 말한다. △'뚜루 퀴즈 온더 블



록' 등의 코너로 어우러지며 명학·주민·재생 DAY가 17일까지 진행됐다. 메인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19일(토)은 본교 이상인 총장서리와 최대호 안양시장의 축사를 비롯해 본교 △공연음악예술학부 △연극영화학부 △음악학부 △응원단 폐가수스의 공연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토크 콘서트, 주민 공연 및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며 본교와 안양시의 지역사회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본교 융합학부 차세대미디어 전공 재학생, '경기도와 함께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 극복 영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

본교 융합학부 차세대미디어전공에 재학 중인 최주호, 윤유진 학우(지도교수 유현식)가 지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주관한 '2020영상콘텐츠-경기도와 함께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 극복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들은 차세대미디어전공 수업인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듣게 되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일정대로 정확히 실행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높은 10~30대에게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수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령층의 취향에

맞도록 예능, 패러디 장르로 제작하기로 결정했고, 오랜 시간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에 패러디 송을 제작했다고 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최주호 학우는 "경험에 의미를 두고 시작하게 된 인생 첫 공모전인데 우수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돼 얼떨떨하면서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말했으며, 윤유진 학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즐기면서 촬영해서 그런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하며 해당 영상이 코로나19 극복에 자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유아교육과

“당신의 학과에 참견해드립니다!” 각 학과만의 신비롭고 재밌는, 궁금한 점을 낱알이 파헤쳐 보는 시간. 본교의 학과를 타인의 시점이 아닌 학과 본연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전지적 학과 시점. 이번 호에선 유아교육과에 참견해보려 한다.

#학생회장이 말하는 유아교육과는?

배세연(유교 18) 학우 유아교육과는 서로 다른 색과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의 예쁜 꽃을 피워내는 학과입니다.

#학과생이 말하는 유아교육과는?

김보미(유교 18) 학우
유아교육과의 가장 큰 장점은 부속유치원이 있어 유아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해 이론만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부속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도 진행해볼 수 있었는데 준비과정이 힘들고 수업 진행에도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예비 유아 교사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멘토·티 제도가 있어 선배 배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배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수님들은 항상 열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강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만큼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도 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학과 생활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유진(유교 19) 학우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의 전공 역량을 쌓으며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과입니다. 과 특성상 현장과 연계된 실기 과목이 많은 편인데 저희 과의 가장 큰 장점은 부속유치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참관 수업을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여 이론 공부를 할 때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 제공도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 수업 시간 내에 예비 교사로서 고민할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부분이 역량을 쌓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봐!

Q 유아교육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1학년 때는 유아교육 관련 학자와 이론, 영유아의 발달 과정 등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이론을 배웁니다.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및 일과 구성에 대해 배우고 교육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또한 수업 시연을 통해 실제 유아 교사가 되면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4학년 때 하게 될 학교 현장실습을 앞두고 유치원의 1년 교육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매주 부속유치원을 참관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4학년에는 유치원 학교 현장실습과 어린이집 보육실습이 진행되며 진정한 유아교육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Q 졸업 후 취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뿐 아니라 ▲유아교육과 관련된 출판사 ▲방송국 ▲유아용 소프트웨어 제작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구 제작 ▲유아교육 행정이 ▲아동문학 작가 ▲아동 음악가 등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봉사에 대해 말해주세요!

1학년 여름 방학 때 단설 유치원에서 교육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첫날부터 물놀이하느라 흠뻑 젖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봉사 첫날이 아이들의 물놀이 기간이라 매우 분주했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선생님들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옷을 갈아입힐 동안 나머지 애들과 잘 놀아주라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놀아줬더니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저는 다음 날부터는 래쉬가드를 챙겨가 옷 걱정 없이 아이들과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Q 유아교육과 소모임은 어떤 게 있나요?

유아교육과에는 ▲도담 ▲락유 ▲유야기 ▲다붓 총 4가지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안 튜터링 소모임 ‘도담’은 선배가 모여 매주 계획안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튜터링을 진행해 전공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안이 완성되면 모의수업 영상을 녹화해 자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비 교사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락유’는 동화를 각색해 동극을 만드는 소모임입니다. 직접 소품과 배경을 제작해 무대 연출 및 대본 작성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합창로 때 성결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들에게 동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도 소모임 ‘유야기’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학과와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동기와 선배를 위해 기도하고 소모임 내외로 유아교육과 학우 간 친목을 도모하며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화 구연 소모임 ‘다붓’은 한 학기마다 단원들과 동화를 제작해 새마을 문고 안양시지부와 연계된 이동식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동화 구연 봉사 활동을 합니다.

Q 합창로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먼저 합창로제는 ‘너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소박한 모습’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성결대학교 사범대 유아교육과 학우들의 열정과 재능을 볼 수 있는 교재교구발표회입니다. 이번 합창로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행사를 구성하던 초기에 교수님과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학생회 임원들은 합창로제를 기대하며 열심히 기획하고 회의에 참석했으나 교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기획안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축소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며 축소 없이 진행하도록 허락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저희 유아교육과 합창로제가 이번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Q 유아교육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세요!

기본 이론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 또 나오고 점차 심화되니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숙지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수업 시연을 피하기보다 최대한 많이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과 놀이에 대해 배우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의 멘토·티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경험해본 멘토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사는 정말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가 돼야 하므로 많은 경험이 쌓이면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겠죠?

#학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과 - 배세연(유교 18) 학우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이정표 - 신유진(유교 19) 학우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틔우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는 학과 - 김보미(유교 18) 학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첫 도약 - 문한솔(유교 19) 학우
글 - 문예빈 수습기자 cagi77@sungkyul.ac.kr

놀면? 뭐하니?

2020 우수학습자 노하우 공유 특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업에 소홀해진 학생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 공부법 및 대학생활 노하우를 알려주는 본교 우수학습자들의 특강을 소개하려 한다.

‘2020 우수학습자 노하우 공유 특강’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한 특강으로 본교 재학생들이 참여해 ▲온라인 수업 학습전략 ▲발표 및 글쓰기 노하우 ▲소소한 대학생활 꿀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안예진 학우의 ‘무기력해진다면 시간을 보이라’라는 특강을 수강했다. 안예진 학우는 시간 관리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메모하는 습관’을 강조했다. “계획을 세울 때 일정을 타이프하게 잡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은 반드시 체크해 공부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하

며 To do list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메모하는 습관은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시켜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해준다. 공부를 할 때는 자신만의 언어로 메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빠른 암기를 가능하게 하고 강의를 다시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을 줄여준다”라며 메모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를 듣고 난 이후 엑셀로 일주일 시간표를 만들어 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작성했다. 수업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됐을 때 꾸물거림이 줄었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됐다. 또한 To do list를 작

성하고 수행한 일은 지음으로써 실천의 성취감도 느꼈다. 강의를 몰아서 듣지 않아도 됐기에 이해도 잘되고 스트레스도 줄었다. 계획이 부담으로 느껴질 땐 ‘계획이 압박이 아닌 스스로의 약속이 되게끔 하라’는 안예진 학우의 말을 떠올리면서 학습 의지를 높였다.

한편 ‘2020 우수학습자 노하우 공유 특강’은 11월 30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 학교생활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글 - 문예빈 수습기자 cagi77@sungkyul.ac.kr

취업의 최종 단계, 면접에 대한 모든 것

면접이란 사람의 인품이나 언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흔히 필기시험 후에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심사라고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을 통과했더라도 최종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만큼, 면접은 취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이번 취업면에서는 취업 면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면접의 기본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면접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려 한다.

#취업 면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면접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자기소개 ▲예상 질문 ▲기업 조사 ▲면접 자세 및 복장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기소개는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단순히 형식적인 자기소개가 아닌 자신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준비해 면접관에게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면접 방식은 주로 면접관이 질문하면 지원자가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지원동기 ▲이력서 자소서 질문 ▲회사생활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지원한 회사와 부서에 대한 지원동기가 명확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모범답안은 실제 면접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동기를 명확히 밝혀 자신이 이 회사에 딱 맞는 인재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기업별로 여러 유형의 질문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이력서 및 자소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면접 기출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 및 간단한 상황 대처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업무

유연성과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자신만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면접 전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비전과 인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지원자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면접관들에게 자신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취업 면접, 복장과 태도

면접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선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 면접 복장은 기업 문화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좋다. 남성의 경우 복장은 상·하의 검은색 또는 회색 계열의 양복 한 벌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경우 의상은 차분한 색의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추천하며 굵이 높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구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복장뿐만 아니라 면접 자세 또한 중요하다. 면접 장소가 위치한 근처를 살피며 30분 전에 도착해 복장 점검 및 마인드 컨트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컨디션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면접장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대기실 등 사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면접관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후로 항상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니 면접장 밖에서의 경솔한 행동이 면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면접은 한 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를 제외한 영역에서



뒤러는 노력보다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면접 예절을 올바르게 익혀 실제 면접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면접 방식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면접전형에 변화를 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면접 진행 자체를 최소화 ▲일대일 면접만 진행 ▲면접 단계 축소 ▲언택트 면접 도입 ▲면접 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하거나 면접 전형이 채용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면접을 준비하던 취업준생들은 면접전형 변화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직무적합성과 인재상 부합 여부에 대한 어필에 중점을 두고 면접 기본기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글 - 임종엽 수습기자 elliot558@sungkyul.ac.kr
사진 - metamorworks, 뉴시스
[참조] 사람인, 서울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업종은?

최근 뉴스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포스트 코로나'란 포스트(Post)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가올 시기와 상황을 의미한다.

#언택트 문화, 코로나 종식 후에도 지속될까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 이르며 대부분의 산업이 채용을 줄여 구직난이 심화됐다. 특히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 업종은 작년 대비 채용 공고가 36.6%나 감소했다. 반면에 ▲IT·웹·통신 ▲기관·협회 ▲건설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채용공고가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가 산업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기술을 발표했다. 이들은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상황을 고려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 19 이후의 환경 변화를 크게 4가지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원격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로 4대 환경 변화를 요약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강조되며 언택트 문화가 확산됐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프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 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쇼핑 앱을 만드는 모바일 앱 개발자와 디자이너 관리자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주



문한 물건을 배달해 주는 유통 전문가와 운송 기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등교 및 개학이 미뤄지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화상 채팅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 및 구축할 개발자와 편집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교육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며 교육의 형태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가 확장되고 사회 문화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IT업계의 채용 증가와 불필요한 대면 서비스 업종이 언택트 문화로 바뀌며 온라인 관련 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쇼핑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이를 겨냥한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존 취업시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작이 개척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글 - 임종엽 수습기자 elliot558@sungkyul.ac.kr
사진 - BBC 코리아
[참조] 앱스토리, 사람인

‘사적 처벌’ 디지털 교도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제작 및 공유 사건을 기억하는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와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구매자를 박제한다는 ‘디지털 교도소’. 이번 사회면에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정의를 주장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빚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교도소

최근 디지털 교도소와 연관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대학생 A씨는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 의뢰를 했다는 이유로 디지털 교도소 측에 의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핸드폰을 해킹 당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 측에선 자신들이 요구한 증거를 보내지 않았고, 목소리 파일 분석 결과 가해자라고 확인하며 신상을 내리지 않았다. ‘증거 제시 없이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차

가해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제작 및 공유 사건의 피의자와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박제한 사이트이다. 2020년 전국을 충격으로 몰들인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 피의자들의 정보 위주로 게시글이 올라와 있

다. 이처럼 제목에 교도소라는 단어가 포함돼 국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와 전혀 관계없는 불법 개인 정보 유포 사이트이다. 해당 사례와 같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 특정인의 신상에 대해 공개 명령을 내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일까? 이번 사회면에서는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이트 소개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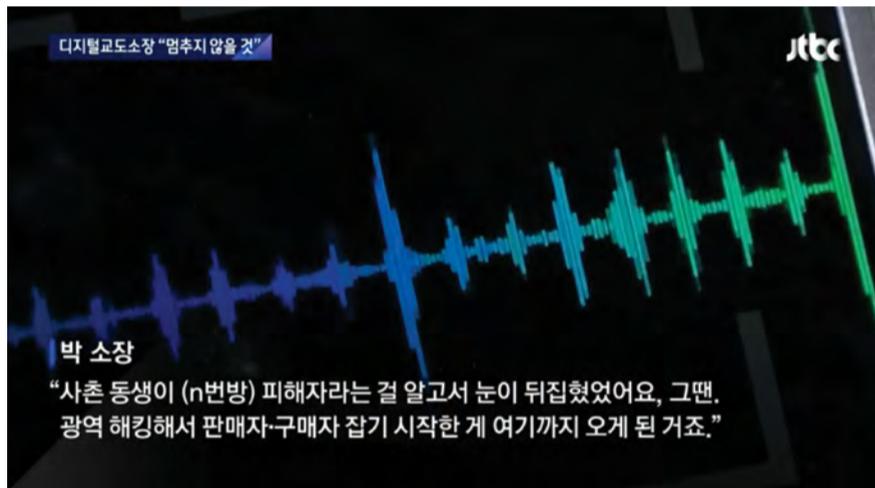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송방향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사촌동생이 피해자였다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는 지난 22일 베트남의 호찌민에서 검거됐고, 현재 한국으로의 송환을 마친 상황이다. 검거 이전에 그는 공동취재단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촌 동생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설명하며 “피해자 보호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젠 사법부와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상황이라 생각한다. 피해자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범죄자들에게만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입장에 일부 네티즌들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비난하기보다 낮은 형벌과 익명성이라는 울타리 아래 가려진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생 조모씨는 “국가는 온갖 이유를 들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꿀팁을 공유하는 나라에서,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체계였다”라고 말하며 “N번방은 범죄자들이 익명성이란 보호막 속에서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드러냈다.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하는 국가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위해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왔나”며 반문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디지털 교도소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안정적인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성이 없는 개인이 누군가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처벌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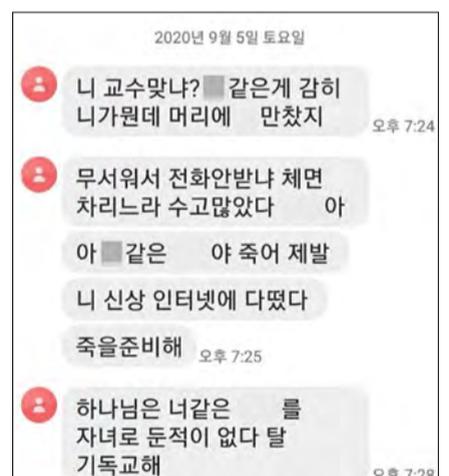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이처럼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에게 주어진 면죄부를 빼앗고,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취지로 개설됐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사이트가 운영되는 과정 또한 ‘범죄’ 그 자체이다.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적 제재와 무고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디지털 교도소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했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올렸다. 결국국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군다나 해외 서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명예 훼손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들은 본인의 행동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물론 범죄자를 옹호해서는 안 되지만 진위 여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보 유출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의’는 정당화를 위해 더럽혀질 뿐이다. 실제로 운영자의 인터뷰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촌동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심각하고 괴로웠을 문제를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함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사법권을 불신하고 비웃고 조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다”며 의견을 냈다.

게다가 디지털 교도소는 법치주의와 대립하는 형태이다. 법치주의란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행한다는 원칙

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따르는 법치 국가인 반면에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과 집단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개척지 정의’ 범죄 집단이다. 이들에게 범죄와 처벌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법의 체계는 필요하지 않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범죄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매우 부실해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실제 조작된 증거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톨릭대 의대 채정호 교수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실제 교도소에 갇힌 것 같았다”며 “믿어준 환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채정호 교수 외에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



해자와 동명이인인 유튜버 김도윤 등이 있다. 이는 개척지 정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다.

#아쉬움과 아쉬움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제재의 위법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 동시에 이는 우리나라 법에 대한 아쉬움을 형태화한 결과물임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 대한 검사의 구형만 있을 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추악한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재빠르게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똑같은 피해자가 나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자가 받는 처벌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글 - 정우민 수습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중앙일보, MBN, JTBC
[참조] 중앙일보, 연합뉴스, YTN, 국민일보, 헤럴드 경제

시리즈 기사 #2

세계 지도에서 인권 찾기

저번 호에서는 인권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에 대해 다뤘다.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개선되며 인권 유린 사례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리즈 기사 2편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강력하게 제정하는 국제 인권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국제 인권법이란?

국제 인권법이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제정한 국제법이다. 이는 인권 문제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세계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가치로 삼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학살이나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도와주고 있으며, 국내법의 개정 운동을 통해 국가의 인권 수준을 향상하는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 인권법에는 ▲인종 차별 철폐 조약 ▲아동·이주노동자·장애인 권리협약 등 다양한 유형의 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국제 인권법은 유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유엔 총회에서 강조됐다. 이후 결속과 형제애가 부각된 인권문제가 두드러지며, 유엔 헌장과 국제 인권 규약을 통해 인권에 대한 국제적 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다.

#긴 터널 끝에 보이는 빛

국제 인권법을 제정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세계 2차 대전에서는 이전까지의 전쟁과 달리 큰 인명피해가 이어졌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 따라서 당시 인권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인권 존중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며, 상호 감시체제로서의 정립을 통해 국제 인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1947년에 들어서야 유엔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며 인종·여성차별철폐 조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등을 초안으로 내세워 인권에 관련된 법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48년에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

에 관한 권리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된 과정 속에서 탄생한 국제 인권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었다. 우선 명확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던 명예살인이나 여성 할례 같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관습을 제지하고 관여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 훼손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되며 긍정적인 기운을 지구촌에 확산시켰다.

#어떻게 생각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을 꾸준히 만든 덕분에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새롭게 제정하려는 위구르 인권법과 제주 4.3 인권법이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다.

많은 이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 위구르 인권법이란 중국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의 소수 민족을 감시하고 구금하는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나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고의로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위구르 인권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한편, 제주 4·3 인권법도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로 6년간 지속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에 유엔 특별 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는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국제 인권법에 있는 규정을 침해당한 사건이므로 미국에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 대사관에 보냈다. 아쉽게도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지만, 유엔의 보고 덕분에 많은 이들이 제주 4·3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됐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비도덕적 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거세게 펼쳐지고 있다.



유엔헌장 제1조 제3항에서 사회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인종·성·언어 그리고 종교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권장 및 장려하며 국제협력을 달성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호받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내외 인권문제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글 - 노하은 수습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뉴스시, 탑스타 뉴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KBS 뉴스



● 스포트라이트

편리함에 가려진 디지털 취약계층

쇼핑, 교육, 금융, 문화 등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처럼 모든 이들이 디지털 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면서 디지털은 필수 요소가 됐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물며 비대면이 중시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됐다. 무인기기가 직원 대신 주문을 받고, 계산을 도맡았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뱅킹으로 간단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함은 젊은 층에게만 해당될 뿐, 고령층에게는 '장벽'으로 느껴진다.

디지털 불평등이란 인터넷 활용 능력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디지털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령층은 경제, 사회,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기계화와 멀어진 걸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방법이 어려움(78.9%)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러움(37.6%) ▲이용할 기기가 없음(31.3%) ▲신체적 제약(28.5%)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인기 유튜버 박막레 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기기로 주문을 시도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에 당황해하며, "기계가 있으면 바로 나와. 글씨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햄버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라고 말하는 박막레 씨의 모습이 담겼고, 이는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불평등은 더 두드러졌다. 우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재고와 확진자 경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직접 약국을 돌



아다니며 마스크를 구하고, 외출 자제로 생활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소식을 뒤늦게 알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정보의 격차는 세대 간의 간극을 넘어 차별을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또한 전국적인 인터넷 이용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회 발전에 따라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격차를 불러올 것이다. 디지털 소외는 노년층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도래한 만큼 모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글 - 서효정 기자 hj000119@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참조] 시사위크, 한화생명

MBTI에 빠진 2030세대

최근 2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성격유형 테스트(MBTI)! 사람들은 너도나도 MBTI를 진행하고 유형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탐색하는 재미에 빠졌다. 이번 호에서는 MBTI 검사의 개념과 각 성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MBTI란?

“너는 무슨 유형이야?”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다루는 이야기거리다. 과거에는 유대감을 쌓기 위해 혈액형과 별자리를 물어봤다면 최근에는 MBTI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MBTI란 무엇일까? 이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테스트다.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인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양식을 통해 결정된다. 각 선호 경향 지표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 유형은 총 16가지다.



MBTI 유형 소개

에너지방향 . . .



외향형
폭 넓은 대인관계
사교적, 활동적



내향형
깊이있는 대인관계
신중함, 집중력

인식기능 . . .



감각형
실제 경험 중시
정확, 철저한 일처리



직관형
직관에 의존
신속, 비약적

판단기능 . . .



사고형
진실과 사실에 관심
논리적 분석적



감정형
사람, 관계에 관심
상황적, 포괄적

생활양식 . . .



판단형
분명한 목적, 방향
철저한 사전 계획



인식형
상황에 맞는 변화
융통성과 적응

좋은일컴퍼니*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

MBTI 4가지 기준 중 에너지 방향은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뉜다. 외향적인 E는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타인과 소통을 중요시한다. 또한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반면, 내향적인 I는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고 혼자 지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들은 다수보다 소수와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좋아하며 행동에 앞서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감각적(sensible)과 직관적(intuitive)

인식 기능은 감각과 직관으로 구분된다. 이를 숲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감각적인 S는 우거진 숲이 아닌 하나의 나무로 인식한다. 반면, 직관적인 N은 나무가 모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숲을 보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림자를 보더라도 그들이 진 원인을 알아보는 경향이 있다.

S는 객관적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한다. 이와 달리 N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다. 현실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일에 있어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편이다.

사고적(thinking)과 감정적(feeling)

판단 기능은 사고와 감정으로 나뉜다. 사고형 T는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한다. 이들은 감정이 관여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수월히 해낸다. 감정적인 F형의 경우 어떤 정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원리원칙에 따르기보다는 상황이나 관계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논리적인 판단보다 선택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중요시해 좋고 나쁨의 흑백 사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판단형(Judging)과 인식형(Perceiving)

생활양식은 판단과 인식으로 분류된다. 판단형 J는 계획적이고, 시간 약속에 엄격하다. 또한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목표 지향적인 특징이 있다. 이들에게 성취감은 삶의 중요한 지표다. 이들과 달리 인식형 P는 목적과 방향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목표를 추구하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 융통성 있게 일을 해결하는 편이기 때문에 발견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이효리, 비, 유재석의 MBTI가 공개되면서 MB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마치 하나의 밈(meme)처럼 ▲MBTI 유형별 궁합 ▲연애 궁합 ▲빙고 ▲팩폭 등 다소 황당한 콘텐츠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웹툰의 주인공 MBTI를 맞춰보는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덕분에 네이버 웹툰의 신작 '2020 최애캐의 MBTI'는 상위권을 유지하며 연재 중이다.

MBTI, 시장에도 적용되다

기업들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한 마케팅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카오는 성격과 취향에 따른 선물을 공개하는 'MBTI 기획전'을 운영했다.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NF형에게는 친환경 버킷 백이나 멸종위기동물 팔찌를, 타인을 잘 돕는 SF형에게는 안마기를 추천하는 등 MZ세대들을 공략했다. 그 결과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인기를 끌었다.

또한 힐라는 SNS에 캐릭터별 MBTI 유형을 소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 나아가 댓글에 친구를 태그하고 자신의 MBTI 유형을 기재하면 추첨을 통해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힐라 코리아 관계자는 "10·20세대는 물론 전 연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유행하

2020 최애캐의 MBTI



*MBTI는 정신분석학자 융의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성격유형 검사입니다. 2020 최애캐의 MBTI는 MBTI의 정확성과 타당성보다는 캐릭터의 심리적 선호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접근에 의미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WEB TOON



는 MBTI를 접목시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구매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교류가 줄어든 이 시점에 MBTI 마케팅으로 재미와 센스를 갖춘 선물을 건네줄 수 있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사용자의 배달 음식 패턴을 알려주는 'BMTI'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배달 주문유형을 파악해 두 가지 글자로 도출하는 방식이다.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는 배달의 민족 내에서 가장 많이 배달을 시킨 항목을 의미하며, 치킨이면 C, 중식이면 J, 한식이면 H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MBTI의 특성을 신박하게 패러디했다. 배달의 민족은 검사 결과를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전략을 기획했다. 이처럼 트렌드에 발맞춘 홍보로 기업들은 소비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도대체 MBTI의 매력이 뭐길래?

앞서 봤듯이 MBTI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MBTI에 열광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속전속결 진행되는 유형검사

MBTI는 12분 이내에 신속하게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볼 수 있다. 더군다나 무료로 진행돼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성격들을 16가지로 나눠 한눈에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지금껏 몰랐던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고 공감하고, 친구와 결과를 공유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관계 연결의 핵심 or 빠른 유대감 형성

“나는 내성적인 I야. 말수가 없어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정체성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 MBTI 결과는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는 도구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는 곧 개별성을 넘어 인간관계로 연결된다. 첫 만남에도 MBTI를 알면 상대방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처음 만난 사람이 INFJ일 경우 내적 활동을 즐기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

예전과 달리 자기 유형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MBTI와 관련된 콘텐츠가 생산된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요즘 세대가 MBTI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커뮤니티를 통해 드라마나 만화 속 캐릭터의 성격유형을 추측하기도 하고, 특정 상황별로 행동을 예측한다. 또한 성격 유형별 플레이리스트, 빙고게임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소비된다.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같은 성격유형 공간에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이 든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요즘,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재미로 보는 MBTI 유형별 다이어트

MBTI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최근 해외에서는 MBTI와 접목한 다이어트 방법이 화제가 됐다. MBTI 16개 유형 중 차이가 뚜렷한 유형 3가지에 대해 언급해보려 한다.

첫 번째, 열정 빼면 시체인 ENFP 유형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한 가지에 꽂히면 움직이는 유형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열정적인 태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ENFP 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이 똥똥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를 해결하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의욕을 불태우며 헬스장이나 PT를 등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ISTJ. 즉흥적인 ENFP 유형과 달리 ISTJ 유형은 한 가지 목표가 생기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체계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던 계획만큼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다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이 다시 찌는 악순환을 겪기도 한다.

세 번째, 꼼꼼하면서 계획적인 ESTJ 유형은 한 번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다이어트 성공률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ESTJ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유형이다.



MBTI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인가?

한편으로 MBTI에 과몰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 스펀지 학술지에서는 MBTI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 의과대학 박진영 연구원은 “사람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근거 없는 데이터 ▲감각과 직감은 상반되는 특성이 아님 ▲현실을 외면해 단순화 ▲정서 불안에 대한 언급 간과 ▲비즈니스와 영업으로 지탱 등 다양한 이유로 비판했다.

또한, MBTI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모방 검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MBTI 검사는 정식 성격 유형 검사를 본 떠 만든 것이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뜻이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알고 진단을 받고 싶다면 정식 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정식 기관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교내 상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니 이용하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김새와 목소리, 체형을 16가지로 나눌 수 없듯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단순하게 정의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MBTI로 상대방을 단정 짓거나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유형에 얽매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 “나는 P형이니까 게으른 거야”라며 스스로의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MBTI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만, 과하게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주변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러니 틀에 갇히지 않고, 재미로만 즐기길 바란다.

글 - 문정혁 수습기자 mju5251@sungkyul.ac.kr
 사진 - 휠라 워니프렌즈, 배달의 민족, 네이버 [참조] 아트인사이트, 세계비즈, 이데일리

공간의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AI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곧 개최된다. 2020 국제인공지능대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0 AI EXPO KOREA에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만날 수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 및 신기술, 신제품을 전시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국내 유일 인공지능 전문 국제 전시회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거나 지식의 폭을 넓혀보는 건 어떨까.

전시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COEX hall D이며 개최 규모는 127개사 220여 부스

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관 규모는 35,000여 명으로 예상, 입장료는 10,000원이지만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학우는 AI EXPO KOREA 사이트에서 10월 20일 18:00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길 바란다.



다양한 전시 품목에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포함된 각양각색의 분야로 ▲AI칩 ▲인공지능 딥러닝 ▲스마트데이터 의료 및 헬스케어 ▲금융 보안 ▲AI 컨설팅 ▲AI 교육시스템 ▲AI 서비스 플랫폼 ▲자율주행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로봇 등이 있다.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사진 - AI EXPO KOREA



라떼는 말이야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보다 보면 그 틈에 새로움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다. 매년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새 가게가 열린다. 새로 생긴 '나만의 맛집'이 반가운 만큼 사라진 '모두의 맛집'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맛집이 아니더라도 오래 본 대형마트와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렇다. 이번 라떼는 말이야와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를 되돌아보자.

까르푸



2006년 국내에서 철수한 대형마트 '까르푸'를 기억하는가? 까르푸는 국내 최초의 하이퍼마켓으로 대형마트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로 '교차로'를 의미하며 1958년 파리 외곽에 열린 매장이 시초다.

프랑스 대형마트 시장을 평정한 뒤 국내 시장에도 상륙해 1996년, 경기도 부천에 까르푸 중동점이 열렸다. 이후 전국 총 22곳 매장을 열어 화려한 매출을 벌어들였지만, 2006년 4월, 이랜드 그룹에 매각하며 10년 만에 까르푸는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필자는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대형마트에 가는 날이면 날마다 동네 까르푸로 향했기 때문에 추억이 많다. 그 시절 대형마트 내부 어린이 놀이방에서 노는 사이 부모님이 쇼핑을 한다든가, 다양한 음식점과 당시 신선했던 푸드 코트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 시절 마트로 까르푸를 뽑고 싶다.

베니건스



'베니건스', '씨즐러', 'T.G.I.F', '마르쉐' 등은 밀리 레스토랑 1세대로 불린다. 외식산업을 이끌던 추억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2000년 초반까지 큰 인기를 끌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2010년 가구 세대가 줄어들면서 위축

됐다. 또 '빔스'와 '아웃백' 등 새로운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식당들에 의해 1세대 레스토랑은 자취를 감췄다.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가 시그니처였던 베니건스 레스토랑.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 및 직원 돌봄 서비스, 세련된 인테리어, 특별한 날 찾고 싶던, 이제는 사라진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추억의 장소 중 하나다.

캔모아



학창시절 어느 더운 여름날, 눈꽃 빙수가 먹고 싶을 때면 향하던 '캔모아'. 지금의 설빙 이전에는 캔모아가 있었다. 또한 흔들의자와 천장에 설치된 밧줄 그네 의자가 있는 등 특히 인테리어가 인기의 이유이기도 했다.

빙수와 음료도 물론이고 스과게티와 같은 간단한 양식도 판매했다. 캔모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짙은 생크림과 무한리필 가능하던 노릇한 토스트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십 년 전 전국에 500여 개의 매장이 있던 캔모아는 현재 20여 개 매장만 남아 운영 중이다. 운이 좋다면 근처에 캔모아 매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 여름, 그 시절의 눈꽃빙수가 떠오른다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 근처 매장을 한 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사진 - 각 사이트 홈페이지

구해줘, 맞춤법!

막역한 친구 사이인 영희와 철수가 만나 동화책을 함께 읽기로 했다. 그런데 이 동화... 어딘가 이상하다. 해도 해도 건달 수가 없는 비문 때문에 신경이 쓰인 나머지, 두 사람은 빨간 펜을 들고 직접 맞춤법을 첨삭하기로 했다! 근처에 빨간 펜이 있다면 영희, 철수와 함께 바른 우리말 동화를 만들어 가보자.

한 집에 사는 토끼와 거북이는 집안일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설겂이는 내가 해! 대신 빨래는 내가 할게."

그 말에 거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번에 내가 한다고 했다가 손잡이 부러뜨린 건 기억 안 나?"

"어의없어. 그렇게 따지면 너도 접시 깬 적 있잖아?" 토끼는 지지 않고 대꾸합니다. "그리고 그 냄비가 희안하게 생겼던 거야. 너도 잡았으면 깧을 걸."

거북이가 토끼의 눈치를 살피며 생각하네요. '토끼가 빠졌을까? 까탈스럽기는.'

위 이야기에서 맞춤법이 틀린 부분은 총 6군데다. '설겂이', '손잡이', '어의 없다', '희안하다', '빠지다', '까탈스'

럽다. 함께 알아보자.

'ㅣ' 모음 역행동화

'ㅣ' 모음 역행동화란 뒤 이은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앞에 있는 모음의 소리가 바뀌는 것이다. 소리는 원래 앞에 있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바뀐다. 이 경우 반대로 뒤에 있는 소리 때문에 앞에 있는 소리가 변형된다.

따라서 설겂이는 설거지, 손잡이는 손잡이, 의의없다는 어이없다, 희안하다는 희한하다로 적어야 한다.

즉, 후설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ㅣ' = 'ㅘ, ㅙ, ㅚ, ㅜ, ㅠ, ㅡ'

-'ㅣ'로 변해 발음되는 현상이다. 발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몇 가지 있다. 냄비, 서울내기, 풋내기 등이 그 예다.

헛갈리는 동사 원형

자주 틀리는 동사 원형의 종류가 있다. '빠지다'가 아닌 '빠지다'이며 '까탈스럽다'가 아닌 '까다롭다'가 표준어다. 외에도 '닥달하다'가 아닌 '뉘달하다', '무릎쓰다'가 아닌 '무릅쓰다' 등이 있다.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즐거로운 문화생활

wise culture

영화



제목 스윗 프랑세즈
감독 사울 딘
출연 미셸 윌리엄스,
 마티아스 쇼에나에츠
개봉 2015.12.03.

※ 이 글에는 영화 '스윗 프랑세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린 서로의 감정을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1942년 나치의 프랑스 점령 당시 스윗 프랑세즈의 원작자 이렌 네미로브스키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체포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60년간 가방 안에 담겨있던 미완성의 자필 원고는 그의 손녀로부터 발견돼 2004년에 스윗 프랑세즈로 출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선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연인이자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애정을 쏟아내게 한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으로 무참히 죽어가는 전쟁 속에 만난 루실과 브루노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루실은 파리를 넘어 뷔시까지 점령한 독일군의 위협으로 적군인 중위 브루노와 함께 살게 된다. 적군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는 애써 남편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견뎌내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브루노의 책상 위에 올려진 뷔시 사람들의 고발 편지를 통해 자신의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살

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허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던 루실. 여러 가지 사건사고 속에 들려오는 브루노의 피아노 연주는 그녀의 마음에 위안을 주며 같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브루노와 루실은 텅 빈 집에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키스를 하고, 숲속에서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서로가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적군이라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두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사랑은 결국 현실이라는 벽에 무너진다.



#영화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마지막 브루노의 뒷모습이 떠올라 루실을 향한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마음에 남았다. 특히 브루노가 죽음을 뒤로하고 루실이 무사히 부위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장면은 필자를 슬픔에 머물게 했다. 후에 들려온 그의 사망 소식은 적을 사랑하고 지킨 대가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루실에 감정이 이입돼 애뜻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한 동안 '스윗 프랑세즈'를 잊을 수 없었다. 기대했던 해피 엔딩의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가을의 쓸쓸함을 잊어버릴 만큼 큰 여운을 줬다. 가을 감성에 젖어センチ해지는 기분이다. 단다면 분위기를 전환해 줄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은 어떨까? 애뜻한 로맨스를 원하는 학우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글 - 김가윤 기자 rt0120@sungkyal.ac.kr
 사진 - 네이버 영화
 [참조] 네이버 영화, 네이버 블로그

음악



노래 Watermelon Sugar
가수 Harry Styles
발매 2019.12.13

달콤한 여름의 끝

"여름아, 제발 빨리 지나가!"라고 외치게 했던 뜨거운 햇살은 저물어가고 어느덧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안 뜨거운 열기에 힘들었던 여름인지 충분히 즐기지 못한 마음에 아쉬움만 남는다. 이런 여름의 끝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노래 Watermelon Sugar를 소개한다.

#스토리 클립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의 두번째 솔로 앨범 수록곡인 Watermelon Sugar는 제목과 같이 여름의 달콤한 수박을 떠오르게 한다. 이 노래는 첫 발매 당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2020년 5월 뮤직비디오가 뒤늦게 발표되자 역주행을 하며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Watermelon Sugar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끝없는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해리 스타일스. 그는 소설책 'In Watermelon Sugar'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시킨다.

#뮤직 클립

노래 중 여름의 오묘한 감정과 여운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가져왔다. 여름의 끝을 표현한 이 가사는 연인 또는 친구, 가족과 함께 보낸 기억을 떠오르게 해 감춰진 감성을 자극한다.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빛, 달콤한 과일들을 상상하며 들어보자.

#감성 클립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재생 버

튼을 누른 순간 시원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기 시작한다. 귀를 때리는 거친 리듬보다 적당히 끈적이는 멜로디가 저절로 춤을 추게 만든다. 해리 스타일스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노래의 흡입력 또한 굉장하다. 수려한 외모와 호소력 있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노래에 빠져들게 한다. 여름의 묘한 분위기를 한가득 담은 가사를 잔잔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원하고 거친 분위기로 전환시켜 지루할 틈 없는 매력을 뽐낸다. 정말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끝없이 듣고 부른 Watermelon Sugar는 나만의 여름송이 됐다. 제발 한 번만 들어보

라고 친구에게 이어폰을 건넬 뉘앙스가 떠올라 웃음이 나기도 한다. 바뀌어 가는 계절을 느낄 때면 여름이 그리워져 노래를 계속 반복해 듣게 된다. 흘러가는 계절을 붙잡을 순 없지만 지난 여름날을 곱씹어 추억하고 싶기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완벽한 바캉스를 뒤로하고 온전히 혼자만의 여름을 즐긴 시간을 돌아보고 싶다면 이 노래를 들길 추천한다.

글 - 김가윤 기자 rt0120@sungkyal.ac.kr
 사진 - 네이버 음악
 [참조] 네이버 음악, 네이버 블로그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berries and that summer feelin'
 It's so wonderful and warm
 Breathe me in, breathe me out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I'm just thinking out loud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Watermelon sugar high

어느 여름 밤의 딸기 같은 맛이야
 감미로운 노랫소리 같기도 해
 난 좀 더 많은 달콤함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아주 멋있고 포근한 기분이어든
 나를 들이마시고, 내쉬어 봐
 난 내가 너 없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
 정말 내가 너 없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달콤함에 취해



1 ...

지난해 우리의 곁을 떠난 故 설리와 故 구하라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10월 14일과 11월 24일이 지난해 그녀들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이 여전히 생생하지만, 야속하게 시간은 흘렀다.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선택은 과거 샤이니 종현을 비롯해, 불과 한 달 전 배우 오인혜까지 비극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故
가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직업 이면에 개인의 나약함이라고 치부하기엔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적, 구조적 문제가 많다. 다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리’가

“설리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다. 사망 기사 보고 다들 그랬겠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나서서 욕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악플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 그 이유만으로 그랬을까. 설리를 알아보고 싶다,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재조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MBC ‘다큐플러스’ ‘故 설리’ 편을 기획한 이모현 PD의 스포티비 뉴스에서의 인터뷰 내용이다. ‘다큐플러스’는 다가오는 1주기를 맞아 설리를 추모하고자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편을 기획했다. 하지만 결과는 낭패스러웠다. ‘다큐플러스’의 기획은 사회적 요인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는 길이 아닌, 악플을 원인으로 내세우는 동어 반복 수준의 구성을 보였다. 오히려 추모는커녕 또 다른 피해자를 재생산해내는 지경에 이른 방송에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고인의 행적을 되짚는 과정 중 전 남자친구 최자와의 공개 연애 이후 모녀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인터뷰와 악익인 편집으로 논란이 터졌다. 의도적인 편집행태와 연출이 마치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최자 개인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이 방송의 여파로 최자는 개인 SNS에서 누리꾼의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다큐의 거창한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제작진 측은 연예계 악플의 심각성에 무지해 보일 정도다.

이후 MBC는 설리 편을 내보내고 나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큐플러스’ ‘설리 편’이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갱신했다고 홍보해 비판을 받았다. ‘다큐플러스’ 게시판에는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설리가 당했던 일을 언론과 미디어는 다시 최자에게 하고 있다”고 제작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며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에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MBC는 ‘다큐플러스’ ‘설리 편’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큐플러스’ 제작진 측은 “설리 편이 기획의도와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플이 달리면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 우려가 커져 VOD 및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문제인 만큼, 후속으로 다루지는 내용을 기획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MBC 다큐 플러스 제공

가수협회 측은 “포털사이트는 연예 기사 댓글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는 사실에 기반한 기사 생산을 장려하고 악플을 유도하는 선정적, 폭력적 기사를 처벌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댓글 창을 막는 법이 시행됐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악플들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악플은 개인의 문제일까?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다큐플러스’ 방송 이후 ‘설리 편’ 관련 기사가 9월 10일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416건이었으며, 그 중 ‘최자’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333건에 달한 다고 했다. 기사들은 ‘다큐플러스’를 비판하는 듯하면서도 문제가 된 내용을 세세하게 나열했다. ‘다큐플러스’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유였다고 보기에 자극적인 기사들이 무더기로 배출됐다. 과연 누리꾼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는 생전 고인의 개인 SNS의 사진을 두고 갑툭음을 펼쳤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걸어 놓고 ‘클릭수, 조회수 장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개인 SNS를 생중계 하면서 논란을 생산해냈다. 미디어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 상 당연한 고충이라는 변명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쉽게 소비되는 기삿거리로 전락시켜 악플러들의 도마 위에 올려준 꼴이 된 것이다.

... 문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걸그룹 출신의 20대 가수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다는 기사가 네이버 포털에서 톱기사로 다뤄졌다.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편성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디어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살 시도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를 가사화시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20대 여성의 자살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명 연

예인의 자살 사망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유명 연예인의 죽음은 추가적인 파장이 더욱 크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 보도량, 뉴스와 실제 자살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미디어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신중해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국위선양한 K팝 스타들을 지지하던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유명인의 자살 사망은 고위험군의 자살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예계와 협력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전적 예방체계를 보완·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수많은 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예계 자살 문제에 대해 인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을 하나로 규명할 수 없지만 아동 청소년기 연예인 지망생들이 집단 합숙 등으로 혹독한 경쟁에 놓이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은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를 뽑아서 몇 년간 집단 합숙 훈련을 시키는데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라고 이를 금지한다”며 “소속사는 연습생들에게 스타로서의 꿈과 성공 지향적인 삶을 주입하는 데다 JYP를 제외한 일부 기획사들은 아이들의 인성 교육도 등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습생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도태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막상 스타가 되더라도 허무함을 느낀다”며 “최소한 연습생들도 학교 수업은 충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인기와 별개로 자기 자신이 그 자체로 소중한다는 자존감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을 두고 직업적인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예인이라 직업 자체가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 겪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미래 예측이 어렵고, 소속사·방송사나 대중에게 선택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직업이기도 하다. 자살 예방 홍보, 상담, 치료 지원 등 방지 대책을 소속사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평가와 경쟁 사회에서 길러지는 연예인 지망생들의 문제는 직업적인 고충을 넘어 무책임한 미디어까지 비극을 만들기에는 이미 재료가 너무 충분한 것이 K-팝의 현주소다. 뛰어난 성과와 욕심에 의해 더 이상 어린 청춘이 희생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

글 - 김민진 수습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사진 - MBC 다큐플러스, 마리끌레르 4호

[참고] 보건복지부, 미디어오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가수협회, 스포티비뉴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 ①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②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③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④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제공



그것이 알고 싶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그 끝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이슈들, 제대로 한 번 알아보자.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와 윤창호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

지난 2018년 9월 25일 대학생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지근한 음주운전 처벌 실태를 비판하고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사망에 이르게 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 윤창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 9월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러 간 한 집안의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고, 동승자 B씨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검도 중이다. 또한 차량이 B씨의 회사 법인 차로 운전자 바뀌치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B씨가 A씨에게 합의금을 내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윤창호법에 대해 본교 파이데이아학부 김재희 교수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전문가와의 인터뷰

Q 현재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동승자에게 어떤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언론에 나왔듯이 동승자 B씨는 방조가 된다. 만약 B씨가 A씨에게 운전하라고 했다면 교사도 될 수 있다. 또 A씨가 직접 할 수 있다면서 운전을 하게 됐다면 이미 범죄를 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경우, B씨는 교사는 아니지만 자기 차를 줌으로써 범죄를 하게끔 도와준 방조범이 된다. A씨는 운전대를 잡았고 살해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범죄를 저지른 정범이라고 이야기한다.

Q 동승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언급하며 회유했다고

하는데, 운전자 바뀌치기 논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운전자 바뀌치기는 조사 결과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했다면 당연히 B씨가 정범이 되고 A씨는 방조범이 된다. 그리고 진범을 잡아야 하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 회유가 사실이라면, B씨 자신은 방조조차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자기 차를 운전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방조가 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회유를 했다고 방조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Q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2018년 50%, 2019년 49.8%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재범률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쉽게 떠오르는 것은 엄벌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도 그렇고, 엄벌로 이어질 피해자의 진술이 두려워 일부러 사망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엄벌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형법학자로서 물음표를 찍는다. 최근 관심받고 있는 영역인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중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또 탄원서나 반성문이 아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양형 자료로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 회복 요소들을 판사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다. 이 경우 표현은 못 할지라도 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다. 그런데 가해자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안전한 상황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판을 벌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처벌 강도를 높인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효과를 봤다고 보시나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해주는 작용을 했다. 윤창호 법이 만들어질 당시 고인이 죽음으로써 사회적인 이슈가 모였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결과로 얼마나 큰 피해가 나왔는지 보여줬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 따님의 청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에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어떤 법률이 나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홍보 효과와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차'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어렸을 때부터 탔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람을 충분히 해칠 수 있는 '흥기'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그 누군가가 내 부모 혹은 형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싶다.

마무리하며

김재희 교수가 말한 '회복적 사법'과 더불어 양형 참작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다. 끝없이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와 줄어들지 않는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엄벌'만을 가지고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하다.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버리는 음주운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참고] YTN, 조선일보, 경남신문



아이패드 에어 3(feat. 프로 3)

구매욕을 자극하는 수많은 기기들이 있다. 그중 강렬한 하나가 바로 아이패드다. 특히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나에게 필요할까? 산다면 잘 사용할까? 아직도 아이패드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이달의 리뷰에 주목해보길 바란다.

아이패드 에어3는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됐다. 가격의 경우 용량 64GB는 629,000원, 256GB는 829,000원이며 셀룰러를 포함했을 때 각각 799,000원, 999,000원이다. 전 세대에서 한 단계 더 커진 10.5형 디스플레이와 500g이 채 안 되는 무게, 6.1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배터리는 최대 10시간 사용 가능한 용량이며 애플펜슬 1세대와 호환된다.



샀을 때 가장 기대하는 점은 전용 앱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필기와 다이어리로 사용 가능한 굿노트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를 구매했다. 각각 만 원을 웃도는 가격이나 두고두고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앱이다. 이렇듯 아이패드에는 내 손안에 든 작은 TV가 돼주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필기 노트와 스케치북이 돼준다.

하지만 평소에도 필기를 잘 하지 않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싼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쉽다. 만약 하더라도 필기감을 중요시 여긴다면 주변 사람 혹은 매장을 통해 먼저 경험해보고 사기를 추천한다. 또한 먼저 나온 프로3에만 애플펜슬 2세대를 지원하는 것과 라이트닝 단자와 부채라고 놀림받고 있는 충전 방식을 그대로 출시한 것은 에어3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는데 가장 고민하게 만든 것은 역시 금액이다. 삼성의 경우 갤럭시탭S6부터는 펜슬이 구성품에 포함돼 있지만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려면 10만 원

가량의 펜슬과 전용 앱을 따로 구매해야 하며 화면 필름, 케이스 등 자잘한 용품들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 기기 값에 최소 15만 원 정도는 더 얹어줘야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아이패드 에어는 다른 시리즈 중에서도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에어3는 프로2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에어4와 아이패드 8세대가 발표됐다. 이번 에어4가 프로 디자인을 차용한 만큼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해 함께 생각해봐도 좋을 듯하다. 아이패드는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아이패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로 그치지 않고 나만의 '무언가'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참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화면이다. 핸드폰보다 훨씬 넓은 화면은 답답했던 시야를 탁 트이게 해준다. 프로3에 비하면 작지만 그림에도 부족한 느낌은 없다. 또한 아이패드들

수습기자 칼럼

문화는 돌고 도는 거야 - 뉴트로 열풍!



문예빈 수습기자

문화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 요즘 사회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일명 뉴트로(New-tro)라 불리는 이 현상은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느끼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뉴트로의 젊은 층에게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설렘과 동경심을 유발하고 중년층에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모든 세대의 공감을 자아냈다.

불과 몇 달 전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혼성 그룹 ‘씩쓰리(SSAK3)’는 팀명 그대로 지난 여름 가요계를 싹쓸이했다. 1990년대의 감수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 뉴트로 음악을 선보이는 유두래곤(유재석), 비룡(비), 린다G(이효리)의 조합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지난달 데뷔 곡 ‘다시 여기 바닷가’는 주요 음원차트를 섭렵했으며, 뒤이어 공개한 두 번째 곡 ‘그 여름을 틀어줘’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렇듯 기성세대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선사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뉴트로 현상은 패션계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대 대표 배우 김희선이 착용해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곱창밴드가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통 넓은 바지는 물론 예전에 유행했던 브릿지 머리도 하나둘씩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2000년대 초반 자취를 감췄던 아이템들이 새로 급부상하며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지금까지만 보면 문화·패션업계에서만 레트로 열풍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은 식음료를 비롯해 여하 종류를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홍보에 뉴트로를 사용하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인 맥심에서는 ‘레트로 커피믹스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판매해 많은 관심을 얻었으며, 레트로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교차점을 만들어준 진로 소주까지 다양했다. 이렇듯 뉴트로의 단순히 기성세대가 경험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의 신선한 감각을 더했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사실 필자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다 여겼던 나팔바지부터 곱창밴드, 헤어 집게핀까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뉴트로가 세대 간의

“
뉴트로의
젊은 층에게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설렘과 동경심을 유발하고
중년층에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모든 세대의 공감을 자아냈다.
”

통합을 이끌어 낸 오작교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말과는 다르게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모든 걸 경험한 90학번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학습한 90년대 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간격은 더 심화될 뿐이다. 요 근래 ‘꼰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대 간 격차가 더해지고 있지만, 그 해답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글 - 문예빈 수습기자 cagi77n@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표현의 자유’에 혐오는 없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일상화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얻었다. 발언의 기회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타인과 상호교환적인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으로 여겨지던 ‘표현의 자유’는 송곳니를 드러내더니 ‘혐오할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혐오 발언의 대상은 국적, 인종, 출신 지역을 뛰어넘어 성별과 연령,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종교와 장애, 사회적 소수자까지 광범위해지고 있다.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고 ‘선동적’이다. 혐오 발언은 필연적으로 ‘폭력의 표적 집단-피해자’와 ‘폭력의 정당성’을 생산해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어리석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일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다수가 묵인하거나 동조한 편견이 사회적 통념으로 인식돼 혐오의 메커니즘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혐오할 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진다.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발언으로 인

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럽 사회는 이미 혐오 표현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혐오’에 대한 키워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송곳니를 드러내는 ‘혐오할 자유’에 대해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혐오’에 합당한 이유는 없고, ‘혐오할 자유’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글 - 김민진 수습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글쓰기의 미학

“잘 쓴 글이란 무엇일까?”

누군가는 비유로 가득 찬 글이라 말할 수 있고, 혹자는 가독성이 좋은 글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잘 쓴 글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A에게 쉬웠던 글이 B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처럼 글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런 글에 잘 쓴 글, 못 쓴 글이라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까?

사실 작년까지도 해도 필자는 글을 잘 쓰는 줄 알았다. 그러나 편집장이 되고 난 후 매월 학보를 발행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편집장 노트’는 짐처럼 다가왔다. 정 기자 때와는 다르게 직책에 걸맞은 글을 써야 한다는 욕심

과 부담은 속이 빈 강정처럼 알맹이 없는 글만 적어낼 뿐이었다.

다큐멘터리 형식, 주제와 객체가 바뀐 형식 등 다양한 주제를 작성했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항상 있어 보이는 글만 작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내 필자를 슬럼프로 몰아넣었다.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 주제를 갈아엎기 일쑤였고, 글의 개요를 짜서 작성하기보단 비유를 먼저 찾아 써 내려갔다. 결국 그렇게 작성한 글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사실을 생산해냈다.

기한에 맞춰 겨우 쓴 글은 항상 부족했지만, 그게 내 최대치라 스스로 위로했다. 매번 의미 없는 글만 그럴듯하

게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필자는 ‘글쓰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앞서 말했듯 잘 쓴 글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화려한 문장을 자랑하는 글이 명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독자의 공감을 사지 못한 글은 결국 잊힐 뿐이다...

‘작가에게 눈물이 없다면, 독자에게 눈물도 없다’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명언처럼 독자의 공감을 사지 못한 필자의 지난 편집장 노트는 실패한 글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밤이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주간사설

제4차 한류 붐과 '진짜 소레나'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어져 온 한일 간의 외교 마찰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 등의 최근 드라마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면서 이른바 '제4차 한류 붐'의 도화선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와 30대 사이에서 한류 드라마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태원 클라쓰'는 한류 기괴 중년 남성들까지도 울렸다고 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류 붐의 역사는 2003년 한류의 원조격인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사회현상이 되었던 제1차와, 2008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등에 의한 K-POP 붐이 일어난 제2차, 그리고 2014년부터 젊은 일본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한국요리 붐과 더불어 빅뱅, BTS, 한일연합 아이돌그룹 트와이스 등에 의한 한국화장품과 패션이 유행한 제3차로 이어져 왔다. 그 이후로도 한일 연합 아이돌 그룹인 아이즈원과 한국식으로 선발된 일본 아이돌 그룹 JO1, nizU 등도 결성되어 K-POP 열풍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4차 한류 붐이 불고 있는 요즘은 사뭇 그 풍속도가 달라진 모습이다. 최근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합쳐진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진짜 소레나'라고 하는 말이 그 중 하나인데, 이 말은 올해 초 니혼TV의 정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인 「ZIP!」의 '10대가 예

상하는 올해의 유행어 대상' 코너에서 소개가 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소레나'라고 하는 말은 '맞아라'의 의미로 2010년대 이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여기에 한국어인 '진짜'가 합쳐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인 미야와키 사쿠라의 입버릇인 '아빠인데'라는 말이 일본의 아사히 방송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유행어로 퍼지기 시작하기도 했다. '쩨어'라고 하는 뜻의 '아빠'와 한국어의 '~인데'의 합성어인 이 '아빠인데'는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는 유행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년 가까이 불어온 한류 열풍이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서 언어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한일 관계사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은 뜨겁다. 일본의 대표서점인 키노쿠니야 서점의 전국매장 2019년도 외국어 학습서 매출 순위에서 제2외국어 중 한국어가 2위인 중국어를 두 배 정도의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에 불과했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응시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3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이 심상치 않다.

과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대중문화의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봉준호 감독과 BTS와 같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교수칼럼

코로나19 시대와 변화를 위한 내적 동기



박은혜 교수
신학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삶의 여러 영역에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에 충격을 받기도 하며 혼란을 겪으며 적응하며 살고 있다. 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여행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잠시 비대면으로 수업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난 봄 학기 전체를 비대면으로 수업하였고, 현재 가을 학기도 언제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교 생활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의 전도 활동 및 선교 활동,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며 조심하며 명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인들을 만나 식사하며 대화하는 일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체육관이나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을 현재는 강제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의 외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가 단지 적응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가 아닌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한다. 동기란 행동의 방향을 결정 짓고, 특정 행동을 지속하게 하며 강화하기도 한다. 보상이나 벌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한 외적 동기와 개인의 내적인 욕구나 힘 등의 내적인 요인에 의한 내적 동기가 있다. 코로나19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조절이나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내적 동기는 자율성이나 자기 결정적 기능의 정도에 따라 조절된다고 한다. 즉 자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결정하면 내적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자발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내적 동기로 인해

사회 변화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리처드 코치와 그렉 록우드(2012)의 "낮선 사람의 효과"라는 책에서 사람 효과는 사람들 간의 연결인 네트워크가 전제된다고 한다. 이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는 가족, 친구, 동료들을 말하는 강한 연결과 낯선 사람, 뜬하게 아는 사람 등을 지칭하는 약한 연결,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수많은 허브가 있다고 한다.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은 약한 연결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깝지 않은 사람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강한 연결에서 약한 연결로, 즉 전 지구인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랑이 결국은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내적 동기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두 번째는 윤리의식의 확대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확대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소극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변화를 위한 시도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거슬러 자신을 초월하려는 노력으로 확대된 윤리적 실천이 가능할 수 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적 상황으로 인해 끌려가기보다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자신으로 인한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확대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했으면 한다. 그 작은 변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소망한다.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독자 참여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 | | | | | |
|---|---|---|---|---|---|
| 주 | 육 | 등 | 유 | 교 | 드 |
| 수 | 마 | 접 | 평 | 털 | 학 |
| 디 | 의 | 소 | 패 | 우 | 운 |
| 치 | 대 | 면 | 법 | 전 | 불 |
| 지 | 유 | 음 | 교 | 아 | 주 |
| 카 | 도 | 자 | 인 | 룡 | 습 |

문제의 답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각 문제는 이번호 기사의 관련 용어를 가리킵니다.

1. 이번 '전지적 학과 시점'에서는 ○○○○과에 대해 다뤘다.
2. '놀면 뭐하니?' 예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한 ○○○○ 노하우 공유 특강에 대해 다뤘다.
3. 취업면에선 취업의 최종단계인 ○○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4. ○○○ ○○○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주장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이트이다.
5. ○○○○는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행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6. 디지털 ○○○○이란 인터넷 활용 능력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7. '스윗 프랑세즈'의 원작자 이렌 네미로브스키는 ○○○○이런 이유로 체포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8.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에 대해 다뤘다.
9. '이달의 리뷰에서'는 아이○○ 에어3와 프로3에 대해 다뤘다.

응모기간 : 11월 20일(금)까지
응모방법 : 학보사(학생회관 109호)로 제출해주세요

〈정답란〉

성결대학교보사에서는 학우들의 귀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퍼즐과 함께 학우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2. 다음 호에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만약 다음 호부터 새로운 코너를 기획한다면 생겼으면 하는 코너가 무엇인가요?
4. 학보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과) : 연락처: 이름:

거침없는 청년정신 / 도전하는 기자정신 / 잘나가는 학보사

지난 호 정답

성장을 꿈꾸다. 결실을 거두다.

2020

성결

FAIR

1등은 나의 것



With_V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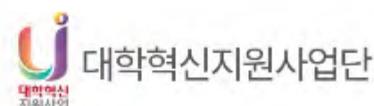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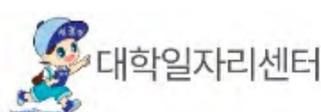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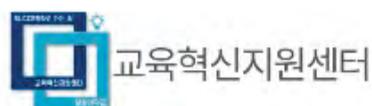


온라인 11.11(수) - 11.13(금)
fair.sungkyul.ac.kr

오프라인 11.11(수) - 11.12(목)
학술정보관 1층 10:00 ~ 17:00

사전신청 필수!

| 비교과 FAIR | JOB FAIR | 성과 FAIR | FAIR 이벤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지원센터 - 교수학습지원센터 - 사회봉사센터 - 학생생활상담소 - 학술정보관 - 유아교육과 - 융합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컨설팅 - 직무 역량강화특강 - 직무 설명회 - 퍼스널컬러진단 - 대학일자리센터 DA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및비교과 - 학생 성공사례 발표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성과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워치 SE - 구글 스마트 스피커 - 삼성 무선 충전기 - USB(32GB) - 치킨 기프티콘 - 커피 기프티콘 |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